

이대로 쪽 ? 연변팀 ‘상승 기류’ 타고 홈장 2连胜 질주

—심수에 1 대 0 승… ‘분위기 반전 성공’



이날 페널티킥 골을 결승골로 이끈 포부스가 선수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시즌 첫 승의 기세를 몰아 홈에서 연승의 축포를 쏘아올렸다.

연변룡정커시안팀 (이하 ‘연변팀’)은 4월 26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 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6라운드 경기에서 심수청년인팀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었다.

시즌 첫 승으로 사기를 진작한 연변팀은 4-4-2 전형을 가동해 호재 겸, 서계조, 왕봉, 박세호로 수비선을 구축했고 중원에는 황진비, 허문광, 도밍구스, 김태연을 내세웠으며 리통과 포부스가 투톱을 이뤄 최전방에 배치되었다. 지난 경기에서 신들린 선방을 펼친 구가호가 키퍼 장갑을 착용한 가운데 이기형 감독은 일부 위치에 변화를 주었지만 여전히 4-4-2 전형을 선보였다.

이에 맞서 심수청년인팀은 용병으로는 38번 노벨 한명을 선발로 내세운 4-3-3 전형을 꺼내들었다. 한편 연변팀에서 활약하다 작년 시즌 도중 심수청년인으로 이적한 한광휘는 벤치에서 출발했다.

시작부터 연변팀은 홈장 우세에 힘입어 강하게 밀어붙이며 주도권 쟁탈에 시동을 걸었다.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는 연계 플레이를 부지런히 시도하며 5분도 안되어 박세호가 경기의 첫 슈팅을 꾀했다.

7분 만에 심수청년인팀의 교체 카드가 나왔다. 한광휘가 부상당한 17번 호명을 교체하며 출전을 알렸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연변팀은 차츰 공 점유율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였고 라인을 전방으로 끌어올리며 공격을 가했다. 상대도 역습을 통한 반격을 노렸지만 연변팀의 수비벽에 막혔다.

전반적으로 연변팀이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을 연출했다. 수자 상대의 문전을 휘저으며 기대를 높였으나 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16분경에

나온 포부스의 1대1 슛 역시 심수청년인의 키퍼가 막아냈다.

경기 중반에 접어들며 공세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공격의 활로를 뚫으려는 두 팀의 눈치 게임이 본격화되었다.

29분경 상대팀 문전에서 패스를 넘겨받은 황진비가 슈팅을 하려는 순간 심수청년인팀 수비수의 끌어안기식 반칙으로 방해를 받았다.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전반전 내내 연변팀은 다수의 기회를 창출했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



한 채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다. 40분경 포부스의 패스를 받아 강력하게 쏘아붙인 김태연의 슈팅이 문전을 살짝 뚫고 43분경 허문광이 문전으로 밀어넣은 공도 골대를 아슬라히 비켜갔다. 이 과정에서 포부스가 또 한번 상대 수비수에 의해 끌어당겨지며 반칙을 호소했다. 그러나 주심의 휘슬은 여전히 울리지 않았다.

연변팀은 전반전을 0대0으로 마무리했다.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한 연변팀은 전반전의 기운을 이어받아 전면 공격을 가동했다.

전반전 내내 잠잠하던 주심의 휘슬이 드디어 울린 건 후반전이 시작되어 5분도 안되었을 때였다. 상대 페널티지역에서 공을 향해 달려가던 도밍구스를 향한 심수청년인팀 수비수 전일범의 위험한 태클이 깊게 들어왔고 이번에 주심은 주저없이 휘슬을 불어 페널티킥을 선언했던 것이다.

포부스가 키퍼로 나섰고 공은 문대 구석을 향해 꽂히며 후반 50분에 연변팀은 1대0으로 앞서갔다.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연변팀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반코트로 라인을 전진 배치하며 격차를 벌이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상대의 역습 찬스도 간간히 있었다. 하지만 뒤공간을 걸어잡은 연변팀의 촘촘한 수비망에 걸리며 좌절되었다.

69분경에 연변팀의 첫 교체 카드가 나왔다. 리세빈이 허문광을 교체하며 출전했다.

연변팀은 랑 측면을 활용해 상대의 뒤공간을 파고들며 득점을 노렸다. 77분경에도 이런 루트로 공격 장면이 만들어지며 심수의 문전이 혼란을 겪었으나 마지막 한방이 나오지 못했다.

81분경, 연변팀은 이날 페널티킥을 유도한 도밍구스를 빼고 천창걸을 투입하며 두번째 교체 카드를 썼다. 89분경에는 음바로 황진비를 교체하며 연속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후반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진 가운데 조급했던 심수청년인팀의 키퍼까지 공중볼 경합에 합세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연변팀은 한풀 차 우세를 끝까지 사수해 1대0 승리로 ‘마귀홈’을 장식했다.

연변팀은 5월 4일에 상해가정회룡팀과 원정에서 격돌한다.

/ 김가혜 김파 기자

경기후

왕봉 “홈장 2连胜은 팀 전체가 단결하여 이룩한 결과물”

4월 26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6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하 ‘연변팀’)은 심수청년인팀을 1대0으로 꺾고 홈장 2连胜을 달성했다.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왕봉이 취재를 받았다.

이날 팀 전체의 경기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왕봉은 “주요하게는 우리 팀이 단결되었다.”고 말하면서 “홈에서 2连胜을 한 것도 팀 상하가 함께 단결하여 이룬 결과”라고 덧붙였다. 홈 첫 승을 이룩한 후 열린 소식공개회에서 이기형 감독은 ‘원팀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왕봉은 “이기는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왕봉은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그라운드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선수로 정평이 나왔다. 이날도 주장 완장을 끼고 출전한 왕봉은 중앙 수비수 위치에서 철벽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 인터뷰 화면 캡처

한편 홈 2连胜으로 승점 6점을 쌓으며 좋은 기운을 불어넣은 연변팀은 순위 9위로 도약했다. 다음 경기 상대인 상해가정회룡팀과 정남공련팀과는 똑같은 승점 7점을 기록중이나 골득실차로 정남공련이 7위, 상해가 8위, 연변이 9위에 나란히 올라있다.

상승 기운을 이어받아 5월 4일에 상해가정회룡과의 원정경기에서도 원팀으로 뛰는 연변팀의 모습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 김가혜기자

감독초대석

“홈에서 2连胜 기쁘다” 이기형 감독 “팬들 홈장으로 와서 많이 응원해주길”



4월 26일 오후 연변룡정커시안팀은 1대0으로 심수청년인팀을 이기고 홈장 2连胜을 가져왔다.

/ 김파기자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경기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사전에 상대팀을 분석하여 세운 공략 계획을 선수들이 잘 리해해주었다. 특히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홈장에서 2连胜하여 기쁘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오늘처럼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고 총평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팬들이 홈장을 찾아 응원해주어 큰 힘을 얻었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팬들이 찾아주길 부탁한다.”고 응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늘의 포토]

홈 2连胜 이끈 ‘제 12 번째’ 선수도 ‘승리의 주역’



연변팀이 개막 초반 원정에서 부진을 겪던 기운을 털고 홈에서 2连胜을 달렸다. ‘원팀’으로 단합된 연변팀의 이기려는 의지가 결과로 나왔던 것이다. 나아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현장을 찾아 “승리하자! 연변!”을 웨

치며 변함없이 선수들을 응원한 팬들 역시 2连胜을 이끈 주역으로 꼽을 수 있다.

이기형 감독도 경기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팀을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고 있는 불꽃축구팬회 회원들의 모습이다.

/ 김가혜기자

/ 사진 연변룡정축구구락부 공식계정

신화사 : 연변 년간 2,000 회 이상 대중축구대회 개최

장백산 아래 두만강반에 위치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에서 가장 일찍 축구운동을 시작한 지역중 하나로 축구의 전통이 100년 이상 이어져왔다. 동북에 위치한 이 변경지역은 총인구가 약 200만명으로 1956년에 중국 최초 ‘축구의 고향’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10년간 연변은 사회축구를 토대로, 학교축구를 기반으로, 축구문화관광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발전 모델을 점차 탐색해왔는데 연간 2,000 회 이상의 대중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축구 열기가 넘치는 지역

이 되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 연길시의 여러 야외 인조잔디 축구장은 또다시 ‘축구 예약 열기’를 맞이하고 있다. 시내 주요 실내축구장은 겨우내 거의 만원 상태를 유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변에는 이미 276 개의 축구장이 건설되었는데 1만 명당 약 1.42 개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현재 전 주 8 개 현 (시) 모두 공공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축구는 연변 사람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에 따르면 지난해 6세부터 60세까지의 연령대를 아우르는 ‘홍석류’컵 전국 백개팀 축구초청대회 등 일련의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도 기관, 대학, 농촌, 로인, 장애인 등 다양한 그룹을 포함한 연변주운동회 등 많은 대회들을 개최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연간 2,000 회 이상의 경기대회를 조직하여 축구 열기가 계속하여 달아오르도록 할 예정이다.

/ 신화사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11년 만에 ‘엘 클라시코’ 국왕컵 결승서 우승

바르셀로나가 11년 만에 열린 ‘엘 클라시코’ 국왕컵 결승에서 웃었다.

에스빠냐 프로축구 바르셀로나가 ‘최대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로 치른 2024-2025 국왕컵 결승에서 연장 혈투 끝에 승리를 따내며 4시즌 만에 정상 복귀에 성공했다.

바르셀로나는 27일 (중국시간)에 열린 결승에서 2-2로 팽팽하던 연장 후반 11분 터진 쥘 쿨레의 결승골을 앞세워 3-2로 승리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2020-2021 시즌 이후 4시즌 만에 국왕컵 챔피언에 복귀하며 통산 32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국왕컵 결승에서 맞대결을 펼친 것은 2013-2014 시즌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에 1-2로 패했으나 이날 승리로 당시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 외신종합